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사 이미지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임경민¹, 조은주^{2*}

¹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²고신대학교 간호학과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Image of nurs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Kyung-Min Lim¹, Eun-Joo Jo^{2*}

¹Department of Nursing,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²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는 B광역시 소재 4개 대학의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 184명이며,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2014년 12월 15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 ANOVA, Scheff'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 정도는 평균이 108.10점, 평균평점은 3.48점, 간호사이미지 정도는 평균이 108.40, 평균평점은 4.01이었고,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평균이 72.00점, 평균평점은 4.0점 이었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성별, 종교유무, 연령, 성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실습만족도와 약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 이미지와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간호전문직관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는 임상실습 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실습내용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임상실습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실습교과만족도, 실습환경만족도, 성적 순이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75.8%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사이미지를 높이는 교육프로그램과 제도적인 접근전략의 개발과 학생들의 체계적인 성적관리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the image of nurses on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were 184 nursing students in B city who had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15 to December 15, 2014 and, analyzed using a t-test, ANOVA, Scheff'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nursing professionalism by gender, religion, age, and school record were observed. Nursing professionalism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In addition,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image of nurses. Meaningful variables that influenced the nursing professionalism were satisfaction with the contents of clinical practice, image of nurses, satisfaction with the course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with the environment of clinical practice, and school record. These factors comprised 75.8% of the total variance in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and the satisfaction with contents of clinical practice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conclusion, to increase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and institutional strategies to improve th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the image of nurses.

Keywords : Image of nurses, Nursing professionalism,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Corresponding Author : Eun-JooJo(Kosin Univ.)

Tel: +82-51-990-3981 email: 112059@kosin.ac.kr

Received February 17, 2016

Revised (1st March 21, 2016, 2nd April 6, 2016)

Accepted April 7, 2016

Published April 30, 2016

1.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계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서비스 전문화와 더불어 소비자들이 질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변화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간호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기대 또한 커지고 있다 [1].

이러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전문직으로서의 간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전문직업관이 형성되어야 한다. 간호전문직업관이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동기과 포부를 결정하며, 인간의 지각과 해석을 좌우하여 간호세계를 보는 의식적 견해 [2] 를 일컫는다. 간호사들이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업에 대한 지각, 신념, 태도의 확립과, 간호의 전문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전문인으로서의 자세와 의식을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이 잘 정립되어 있으면, 간호 업무에 대한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으며 바른 가치관과 전문성의 확립과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가 내재되어 간호전문직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반면, 바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지 못하면 간호전문직에 대한 자긍심의 결여와 위축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1, 4].

간호 교육의 일차적 목표는 이론과 실습의 교육과정을 마친 뒤 전문직 간호사로서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며,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간호 인력의 양성에 있다 [5-6]. 간호대학생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간호전문직관이 형성되며, 긍정적인 변화를 거치게 된다. 또한 간호전문직관이 간호대학생이나 실무현장의 간호사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에 비취볼 때 [7], 미래의 간호계를 젊어질 간호대학생이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임상실습은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실제적인 지식과 경험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임상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간호사의 역할을 습득하고, 간호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및 간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7-9]. 임상실습 만족도는 임상실습의 내용, 지도,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정서반응으로 [9], 임상실습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간호대학생은 자존심에 손상을 받고 간호사가 된 후에도 업무에 충실하게 전념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10].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을 위해 학교와 임상실습기관 모두

가 관심을 가지며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해결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환자, 보호자, 간호사, 의사 및 의료관련 타직원 등과의 일상적인 접촉을 하면서 간호사의 위치를 확인하고, 막연하게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간호 전문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기 확신을 가지게 된다 [11].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사 자신이 간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과 병원이라는 직장 단위 안에서 간호사와 함께 상호작용하는 의사, 병원직원, 환자, 보호자가 그동안의 간호와 간호사에 대해 품고 있는 느낌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12]. 간호대학생이 가지는 간호사 이미지는 처음에는 외부인과 차이가 없는 유사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간호교육을 받는 동안에 간호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함께 간호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 신념, 가치, 윤리적 표준 등을 자기 이미지와 행동의 일부로 내면화하여 받아들인다 [13].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사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가지게 된다면, 보다 자부심을 갖고 간호학 교육 및 실습에 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임상이나 지역사회 등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로서의 역할수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14].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를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연구한 논문 [15] 과 성별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비교에 관한 논문 [16],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17]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이미지와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18] 등이 있었다. 그러나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사 이미지를 변수로 하여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은 Ham 등 [15] 의 논문 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대학생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형성되며 긍정적인 변화를 거친다는 점에 주목해볼 때, Ham 등 [15] 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을 다 마친 졸업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이 진행 중인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간호교육의 진행정도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의 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사 이미지를 독립변수로 하여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과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간호사 이미지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간호 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이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제 특성을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및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제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5)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교과목, 실습내용, 실습지도, 실습환경, 실습시간, 실습평가 등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정서반응이다 [9]. 본 연구에서는 Cho & Kang [10] 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Han [9] 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1.3.2 간호사 이미지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사 자신이 간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과 병원이라는 직장 단위 안에서 간호사와 함께 상호작용하는 의사, 병원, 직원, 환자, 보호자가 그동안의 간호와 간호사에 대해 품고 있는 느낌이다 [12]. 본 연구에서는 Yang [19] 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Lee 등 [20] 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1.3.3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와 간호사에 대한 신념, 관념 및 인상의 총합으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자의 간호활동 과정인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 의식적인 견해이다 [2]. 본 연구에서는 Yeun 등 [2] 이 개발하고 Kim [21] 이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 검증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사 이미지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대상자는 B 광역시 소재 4개 대학에서 6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 동의를 한 학생들이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동년 12월 15일까지 30일간 수집하였다. 해당학교에 본 연구자가 직접 학부장, 학과장을 방문하여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협조를 받았다. 교과목 수업 전에 담당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헬싱키 선언을 준수하여 대상자의 복지가 모든 다른 이익보다 우선되는 것과 연구의 목적과 방법, 예견되는 잠재적 위험, 연구가 초래할 수 있는 불편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 익명성과 비밀보장 등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이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평균 35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문지와 동의서를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회수하여 보관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지정된 장소에 잠금장치를 사용하여 보관하였고, 수집된 자료가 등록된 컴퓨터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연구자 외에는 접근 불가하도록 하였다. 연구 자료는 연구 완료 3년이 지난 후 설문지는 분쇄기를 사용하여 파쇄할 것이고,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및 자료는 영구 삭제할 것이다.

본 연구의 표본 수를 계산하기 위해 G power 3.1.2 program을 이용하여 일원분산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α) 0.05, 검정력(1- β) 85%, 효과크기 (f^2)는 중간크기인 .20(medium)으로 선정하여 산출하였을 때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표본의 크기는 182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자료수집 결과,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18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대상자의 제 특성 5문항, 임상실습만족도 31문항, 간호사 이미지 27문항, 간호전문직관 18문항으로 총 8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3.1 임상실습만족도 측정도구

임상실습만족도 측정도구는 Cho & Kang [10] 이 개발한 임상실습만족도 측정도구를 Han [9] 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실습교과에 대한 만족 3문항,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 6문항, 실습지도에 대한 만족 9문항, 실습환경에 대한 만족 7문항, 실습시간에 대한 만족 3문항, 실습평가에 대한 만족 3문항의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an [9] 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73$ 이었다.

2.3.2 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

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는 Yang [19] 이 개발하고 Lee 등 [20] 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내용은 전통적 이미지 12문항, 사회적 이미지 6문항, 전문적 이미지 6문항, 개인적 이미지 3문항의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Lee 등 [20] 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74$ 이었다.

2.3.3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는 Yeun 등 [2] 이 개발한 29문항을 Kim [21] 이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 검증으로 문항을 축소한 총 18문항을 사용하였다. 본도구의 내용은 전문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된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잘 정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Kim [21] 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3$ 이었다

2.4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 방법은 SPSS/WIN 18.0 program 을 이용하여 수집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제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이미지 및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평균과 평균평점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간호전문직관 정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제 특성

대상자의 제 특성 중 성별은 여자가 89.7%(165명), 종교는 무교가 51.1%(94명), 연령은 21-22세가 60.9%(112명), 학업 성적은 평균 3.0-3.9가 72.8%(134명), 간호학과 선택 동기는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가 35.5%(65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Degree of Nursing Professionalism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84)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t or F	p	Scheffé
Gender	Men	19(10.3)	67.73±4.95	-3.603	.001**	
	Women	165(89.7)	72.49±8.65			
Religion	Yes	90(48.9)	73.98±8.08	3.191	.002**	
	No	94(51.1)	70.10±8.42			
Age	21-22 ^a	112(60.9)	70.77±8.39	4.179	.017*	a<c
	23-24 ^b	24(13)	71.96±7.83			
	25< ^c	48(26.1)	74.92±8.39			
School record	2.0-2.9 ^a	34(18.5)	67.15±8.19	7.659	.001**	a<b,c
	3.0-3.9 ^b	134(72.8)	72.93±8.08			
	4.0c <	16(8.7)	74.56±8.91			
Entering Motivation	Considering high school record	20(10.9)	70.80±8.746	.912	.458	
	Considering aptitude	65(35.5)	73.28±8.005			
	Employment	49(26.6)	70.51±8.583			
	Recommendation of parents and teacher	34(18.5)	71.94±9.566			
	etc.	16(8.7)	73.06±6.981			

*: p<.05, **: p<.01, ***: p<.001

3.2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간호전문직관 정도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 정도는 평균이 108.10점 (±14.44), 평균평점은 3.48점(±0.46)이었으며, 하위영역

으로는 실습교과 만족도가 3.94점(±0.68)으로 가장 높았 으며, 실습내용 만족도는 3.85점(±0.59), 실습평가 만족 도는 3.52점(±0.73), 실습 환경 만족도는 3.49점(±0.66), 실습시간 만족도는 3.38점(±0.79), 실습지도 만족도는

Table 2. Degree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Image of nurses, Nursing professionalism (N=184)

Variables	Item No.	Mean±S.D.	Range	Average Mean±S.D.	Rang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31	108.10±14.44	31-155	3.48±0.46	1-5
Satisfaction with course of clinical practice	3	11.81±2.04	3-15	3.94±0.68	1-5
Satisfaction with contents of clinical practice	6	23.11±3.51	6-30	3.85±0.59	1-5
Satisfaction with guidance of clinical practice	9	30.41±5.86	9-45	3.38±.65	1-5
Satisfaction with environment of clinical practice	7	24.43±4.60	7-35	3.49±0.66	1-5
Satisfaction with time of clinical practice	3	10.15±2.38	3-15	3.38±0.79	1-5
Satisfaction with estimation of clinical practice	3	10.57±2.18	3-15	3.52±0.73	1-5
Image of nurses	27	108.40±13.53	27-135	4.01±0.50	1-5
Traditional image	12	49.02±6.97	12-60	4.08±0.58	1-5
Social image	6	23.55±3.27	6-30	3.93±0.54	1-5
Professional image	6	25.97±4.42	6-30	4.33±0.74	1-5
Individual image	3	9.86±3.23	3-15	3.29±1.08	1-5
Nursing professionalism	18	72.00±8.46	18-90	4.0±0.47	1-5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6	72.00±8.46	6-30	4.13±0.58	1-5
Social awareness	5	18.79±3.47	5-25	3.75±0.69	1-5
Professionalism of nursing	3	12.34±1.78	3-15	4.11±0.59	1-5
Roles of nursing service	2	8.10±1.50	2-10	4.05±0.75	1-5
Autonomy of nursing	2	7.92±2.38	2-10	3.96±1.19	1-5

Table 3. Correlation among Image of nurses,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Nursing professionalism (N=184)

Variables	Nursing professionalism	
	r	p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317	< .001***
Satisfaction with course of clinical practice	.454	< .001***
Satisfaction with contents of clinical practice	.310	< .001***
Satisfaction with guidance of clinical practice	.183	< .001***
Satisfaction with environment of clinical practice	.117	< .001***
Satisfaction with time of clinical practice	.212	< .001***
Satisfaction with estimation of clinical practice	.261	< .001***
Image of nurses	.615	< .001***
Traditional image	.542	< .001***
Social image	.524	< .001***
Professional image	.503	< .001***
Individual image	.195	< .001***

*: p<.05, **: p<.01, ***: p<.001

3.38점(±0.65)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간호사이미지 정도는 평균이 108.40±(13.53), 평균평점은 4.01(±0.50)이었으며, 하위영역에서는 전문적 이미지가 4.33점(±0.74), 전통적 이미지는 4.08점(±0.58), 사회적 이미지는 3.93점(±0.54), 개인적 이미지는 3.29점(±1.08)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평균이 72.00점(±8.46), 평균평점은 4.0점(±0.47)이었으며, 하위영역으로는 전문직 자아개념이 4.13점(±0.58), 간호의 전문성은 4.11점(±0.59), 간호계의 역할은 4.05점(±0.75), 간호의 독자성은 3.96점(±1.19), 사회적 인식은 3.75점(±0.69)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간호문직 정도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는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t=-3.603, p=.001$), 종교유무($t=3.191, p=.002$), 연령($F=4.179, p=.017$), 성적($F=7.659,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증결과, 연령에서 25세 이상 군이 21-22군보다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성적은 평점 2.0-2.9군 보다 평점 3.0-3.9군과 평점 4.0군의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1).

3.4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는 미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317, p<.001$).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실습만족도의

하위영역인 실습교과만족($r=.454, p<.001$)과는 중간정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실습내용만족($r=.310, p<.001$), 실습지도만족($r=.183, p<.001$), 실습환경만족($r=.117, p<.001$), 실습시간만족($r=.212, p<.001$), 실습평가만족($r=.261, p<.001$)과는 미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615, p<.001$).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 이미지의 하위영역인 전통적 이미지($r=.542, p<.001$), 사회적 이미지($r=.524, p<.001$), 전문적 이미지($r=.503, p<.001$)와는 중간 정도의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개인적 이미지($r=.195, p<.001$)와는 약한 정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간호사 이미지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5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들 중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간호사 이미지와 하위영역(전통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전문적 이미지, 개인적 이미지), 임상실습만족도와 하위영역(실습교과만족도, 실습내용만족도, 실습지도만족도, 실습환경만족도, 실습시간만족도, 실습평가만족도)과 제 특성에서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성별, 종교, 나이, 성적을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중 명목변수는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

Table 4.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Nursing professionalism with Predictor variables (N=184)

Variable	B	SE	β	t	p	Adj. R ²
Constant	.693	.174		3.975	<.001***	
Satisfaction with contents of clinical practice	.088	.006	.659	15.692	<.001***	.641
Image of nurses	.008	.002	.243	5.469	<.001***	.714
Satisfaction with course of clinical practice	.042	.010	.181	4.298	<.001***	.730
Satisfaction with environment of clinical practice	.015	.004	.149	3.796	<.001***	.752
School record	.081	.035	.088	2.347	.02*	.758
Adj. R² =.758, F=111.49, p<.001***						

*: p<.05, **: p<.01, ***: p<.001

선성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차한계값(tolerance)과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와 잔차값(Durbin-Watson)을 산출하였다. 공차한계값은 0.752~1.000에 있고, VIF 값은 1.000~1.496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정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Durbin Watson 값을 구한 결과, 2.104으로 나타나 2에 가까우므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잔차의 정규성, 등분산성의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111.49, p<.001), 모형의 수정된 결정계수(R²)는 .758로 전체 설명력이 75.8%이었다. 간호대학생의 간호 전문직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임상실습 만족도의 하위영역인 실습내용 만족(β =.659)이었고, 실습내용 만족의 설명력은 64.1%이었으며, 다음으로 간호이미지 (β =.243), 임상실습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실습교과만족(β =.181), 실습환경만족(β =.149), 성적(β =.088)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 정도는 평균평점이 3.48±0.46(척도범위: 1-5)으로 중간 정도였다. 이는 Lee & Ha [22]의 연구결과(3.54점)와, Ham 등 [15]의 연구결과(3.43점)와 유사하였고, Ji [24]의 연구결과(3.04점)의 연구결과(3.10점)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구대상자의 학년과 임상실습 경험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본 연구는

임상실습 600시간 이상을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Lee & Ha [22]의 연구에서는 1학기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Ham 등 [15]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을 마친 간호학과 졸업학년을 대상으로, Ji [24]의 연구에서는 3년제 간호학과의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연구대상자의 학년 및 임상실습경험의 정도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여겨진다. 본 연구의 하위영역에서는 실습교과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실습내용, 실습평가, 실습환경, 실습시간, 실습지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Ji [24]의 연구에서 실습교과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과 같은 결과이었고, 다음으로 실습환경, 실습시간, 실습평가, 실습지도, 실습내용 만족도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습지도 영역은 두 연구 모두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Lee & Ha [22]의 연구에서도 임상실습 만족도는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시 수행과 관찰의 비율, 임상실습지도자에게 지도받은 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습지도영역에서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특별히 실습지도영역에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습현장에서 이론적으로 배운 간호술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임상현장 지도자의 학생에 대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실습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정도는 평균평점이 4.01±0.50(척도범위: 1-5)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로 측정된 Ham 등 [15]의 3.71점과 Lee 등 [20]의 3.40점, 다른 도구로 측정된 Lee [18]의 연구에서 3.75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하위영역에서는 전문적 이미지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통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개인적 이미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Ham 등 [15]의 연구

와 일치하는 결과이었다. 즉, 간호대학생은 간호사에 대한 전문적 이미지는 높고 긍정적이지만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와 개인적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간호사의 이미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사회적인 간호사 이미지의 개선을 위한 노력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평균평점이 4.0 ± 0.47 (척도범위:1-5)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졸업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Ko & Kim [23]의 연구에서 3.67점, 졸업학년을 대상으로 Ham 등 [15]의 연구에서 3.43점, 3년제 간호학과 1,2,3학년을 대상으로 한 Kwon & Yeun [25]의 연구에서 3.60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높았다. 이는 임상실습 시간의 정도나 학년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하위영역에서는 전문직 자아개념이 가장 높았으며, 간호의 전문성, 간호계의 역할, 간호의 독자성, 사회적 인식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Kwon & Yeun [25]의 연구에서는 간호의 전문성이, Ham 등 [15]의 연구에서는 간호의 독자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에서 사회적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었다. 이는 간호학생의 전문직관은 학년이나 실습전후, 다양한 전공과목의 학습에 따라 전문직관의 하위영역의 순위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이 공통적으로 가장 낮은 것을 볼 때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 종교유무, 연령, 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가, 연령이 높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간호전문직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1학년에서 4학년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Jang [17]의 연구에서는 종교의 유무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남자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18]의 연구에서 학년과 아버지 직업이 유의한 변수였다는 보고와, 이은경과 Kim [16]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보고와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제 특성과 관련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은 미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6개 하위영역에서도 미약하거나 중간정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Ham 등 [15]의 연구에서도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대상자의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4개의 하위영역에서도 중간정도이거나 미약한 정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Ham 등 [15]의 연구와 Lee [18]의 연구에서 간호사 이미지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과 일치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고 간호사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상실습만족도의 하위영역인 실습내용만족, 간호사 이미지, 임상실습만족의 하위요인 중 실습효과만족, 실습환경만족과 성적이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75.8%이었다. 이는 동일한 변수로 영향요인을 연구한 논문이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지만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am 등 [5]의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요인은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종교, 임상실습만족도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위의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사 이미지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대학생들의 미래의 자화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변수이다. 특히 간호사 이미지 정도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사 이미지는 전문적인 이론 지식과 고도의 기술 능력을 갖추고 근거에 기준한(evidence-based)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가진 직업이라는 점에서 긍지와 자부심이 있지만, 그에 걸 맞는 사회적 지위를 비롯한 보상과 대우 등은 미흡하다는 인식과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사에 대한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개선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간호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간호계의 많은 봉사과 헌신 등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의 인식이 낮은 것은 일차적으로는 지역사회

와의 소통의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는 간호계 내의 자성과 인식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임상적인 전문영역을 넘어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의 전반적인 사회영역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책임 있는 전문인의 역할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접근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별히 간호사의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진 여러 가지의 여건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방송이나 드라마 등에서 비취지는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간호사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메르스 사태 등에서 활약한 간호사의 긍정적인 역할과 사회공헌 등을 부각시키는 대국민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의 독자적인 영역 확대를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간호수거의 개발 등 제도적인 개선과 학문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겠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임상실습 교과만족을 높이기 위해 이론적 지식을 실습에 적용할 수 있는 병동과 병실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 임상실습의 현장은 환자의 권리와 보호라는 명목과 바쁜 임상현장 등의 이유로 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의 간호가 적어 담당교과에서 꼭 습득해야 할 경험들이 이론이나 관찰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습된 지식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실제적인 간호수행을 적용하여 임상실습 교과만족도를 높이는 실습교과개선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실습의 내용에 있어서도 혈압이나 혈당 측정 등의 단순한 기능적인 일만을 반복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중심학습과 간호과정을 적용한 실습내용으로 지도를 하며, 자신이 담당하는 환자를 지정하여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와 함께 필요한 임상간호를 현장지도자의 감독 아래 실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을 통해 임상실습내용의 만족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임상실습의 현장이 간호교육을 제공하는데 적절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실습에 임할 수 있는 학습분위기를 제공하고, 탈의실과 휴게공간의 충분한 확보 및 오리엔테이션과 집담회를 위한 독립적인 장소의 구비 등을 통해 임상실습환경만족도를 높이도록 학교당국과 실습기관의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협약과 협조도 필요한 부분이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적을 잘 관리하고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해야 하는데,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활용한 프로그램 학습 등을 개발하여 학습지도에 힘쓰고 성적관리와 학교적응을 위한 정기적인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활성화시키고 튜터링과 멘토링 제도 등을 활용한 성적향상 방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간호사이미지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이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는 성별, 종교유무, 연령, 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는 미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상실습내용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임상실습교과만족도, 임상실습환경만족도와 성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과 방안이 마련되어야겠다. 이를 위해 간호사 이미지를 높이는 전략과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고, 이론과 실습을 연계시키는 실습교과 및 실습내용의 개선과 실습환경의 조성을 통해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며, 다양한 성적향상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이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개지역의 4개 대학의 간호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의 결과를 확대해석하거나 일반화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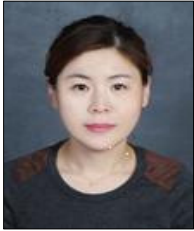
References

- [1] D. S. Im, "A study on nursing profession and attitude

- toward death of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2005.
- [2] E. J. Yeun, Y. M. Kwon, O. H. A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No.6, pp.1091-1100, 2005.
 - [3] Y. H. Han, I. S. Shon, K. O. Park, K. H. Ka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ism, Job involve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Clinical nurse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16 No.2, pp.17-31, 2010.
 - [4] G. B. Kim, H. S. Kim, K. H. Lee, Clinical Nurses' Professional Conflic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1 No.3, pp.492-505, 2001.
 - [5] Hak Soon Cho,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32 No.2, pp.57-72, 2007.
 - [6] Waldner, M. H., & Olson, J. K. "Taking the patient to the classroom:Applying theoretical frameworks to simulation in nursing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Vol.4 No.1, pp.1-14, 2007.
 - [7] Y. M. Kwon, & E. J. Yeun,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3, No.2, pp. 285-292, 2007.
 - [8] Jung Ae Yee,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10 No.3, pp.325-334, 2004.
 - [9] Su Jeong. Han,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mpowermen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6 No.1 pp.132-146, 2000.
 - [10] Kyoul Ja. Cho, Hyun Sook. Kang, "Study on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14 No.2, 1984.
 - [11] Jin Ju. Yang, "Nurses' Image perceived by Student Nurses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9 No.1, pp.64-72, 2003.
 - [12] In-Ja. Song, "A Comparative Study of the Opinion on the Image of Nursing Among the Doctors, Nurses, other Hospital Personnel and the General Public", *The Korean nurse*. Vol.32 No.2, pp.51-61, 1993.
 - [13] Jung Choi, Na Sun Ha, "The Relationship among Image of Nurses, Self Esteem and Professional Socialization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15 No.1, pp.54-63, 2009.
 - [14] Duk Ja. Oh, Chul Ja. Choi, Bo Eun. Kwon, Yeon Hwan. Park, "The Effects of Image of Nurses on Professional Socializa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1 No.1, pp.64-72, 2005.
 - [15] Y. S. Ham, H. S. Kim, I. S. Cho, & J. Y. Lim,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17, No.3, pp.538-546, 2011.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3.536>
 - [16] Eun-Kyung. Lee, Ok-Hyun. Kim, "Comparison among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by Gende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5, No, 4(B), pp.2135-2148, 2013.
 - [17] Tae Jeong. Jang,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in, Major, and Self-leadership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2014
 - [18] Si Ra Lee, Nurse Image, Satisfaction of Major effect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Male Students in Nursin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11.
 - [19] Il-Shim. Yang,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Determinant's the imag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4 No.2, pp.289-306, 1998.
 - [20] Soon Hee Lee, Sook Young Kim, Jung A Kim,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10 No.2, pp.219-231, 2004.
 - [21] Myung-Hee Kim,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Graduate School Kyeonghee University, 2008.
 - [22] Myung-Sook Lee, Young-ok H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2, pp.8738-8744, 2015.
 - [23] Y. J. Ko, & I. K.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1, pp.62-71, 2011.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1.062>
 - [24] Eun Mi, Ji, "A Study on Nursing Students' Stress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of Kwangju Women's University, 2013.
 - [25] Y. M. Kwon, & E. J. Yeun,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3, No.2, pp. 285-292, 2007.

임 경 민(Kyoung-Min Lim)

[정회원]



- 2008년 9월 : 고신대학교 보건과 학과(의료경영 전공) 석사1
- 2012년 2월 : 고신대학교 보건과 학과(의료경영 전공)박사
- 2016년 3월 : 고신대학교 간호학 박사 과정
- 2015년 3월 ~ 현재 : 춘해보건대학교(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지역사회간호학, 간호인사관리, 의료경영, 의료서비스 마케팅

조 은 주(Eun-Joo Jo)

[정회원]



- 2000년 8월 : 고신대학교 보건학 원 보건과학과 (보건학석사)
- 2004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보건학박사)
- 2005년 1월 ~ 2007년 12월 : 한국보건교육협회의 부산지부 사무국장
- 2012년 3월 ~ 현재 : 고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지역사회간호, 보건교육, 국제간호, 간호선교